

<2016년 11월 2일 수요말씀>

<거꾸로> 보여도 <바로> 보아라

본 문 잠언 4장 25-26절

『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피
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』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

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

말씀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주일에 <생각>에 대해 충분히 말씀해 줬으니
더 해 줄 말씀은 <다음 주 주일>에 해 주기로 하고,
오늘은 ‘<바로> 보고 생각하는 것’에 대해 말씀해 주겠습니다.

◎ 주제는 ‘<거꾸로> 보여도 <바로> 보아라.’입니다.
다시 말하면 ‘<거꾸로> 보지 말고 <바로> 보아라.’입니다.

◎ 잠언으로 한 동작씩 이해하기 쉽게 전해 주겠습니다.

<잠언의 말씀>은 하나 듣고 계속 이어서 들으면,
그 의미가 쑥 들어오고 깨달아집니다.

<잠언>을 통해 ‘삼위와 주의 깊은 뜻’을 깨닫기 바랍니다.

<말씀 시작>

- ◆ <이해>와 <이치>다.
- ◆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셔도
그 생각과 모양과 형상을 못 깨달으면,
평생 자기 생각대로 알고 끝난다.
- ◆ <거꾸로> 보여도 <바로> 보아라.
- ◆ 하나님은 ‘그것을 받는 자’가 먼저 알고 주인이 되게 하신다.
고로 타인이 주인이 못 되도록
은밀하게 <거꾸로> 형상을 보여 주신다.
그리고 ‘받는 자’가 <바로> 보기를 원하신다.
- ◆ 성경에서 “메시아는 ‘하늘’에서 ‘구름’ 타고 온다.” 했다.
<거꾸로> 말한 것과 같다.
<바로> 보니, 메시아는 ‘땅’에서 왔다.
- ◆ 엄마가 자기를 낳을 때 머리부터 <거꾸로> 낳았다고 해서
<거꾸로> 걸어 다닐 것이냐.
- ◆ 모든 사물도 인생도 ‘자기 주관, 자기중심, 자기 의지’로 보면,
<거꾸로> 보인다.
- ◆ 주를 삼위일체는 ‘받는 자’만 알도록
그 형상을 감추시려고 <거꾸로> 보여 주신다.

고로 사람들은 <거꾸로> 보니 “별로다.” 한다.

그러나 하나님은 ‘받는 자’에게 지혜를 주시어
<바로> 보게 하신다.

- ◆ 월명동의 <여인 얼굴 바위(성령바위)>도
주인이 <거꾸로> 세워 놓고 ‘초가집 형상’ 이라고 했다.

그래서 헐값에 팔았다.

그 돌을 사 와서 월명동에 세우려 할 때
선생도 돌을 판 주인과 똑같이 <거꾸로> 세우려고
크레인으로 높이 들어 올렸다.

그때 그 돌의 밑바닥이 ‘여자 얼굴’로 보였다.

그래서 “여자 얼굴이다!” 소리를 지르며,
그 돌을 바닥에 다시 내려놓고 <바로> 세웠다.

전의 주인이 작품으로 보던 ‘초가집 형상 쪽’을 <밑>으로 하고,
내가 다시 본 ‘여자 얼굴 형상 쪽’을 <위>로 해서 세웠다.

그리고 뒤를 보니

‘매부리 모양의 코가 높은 남자 얼굴 형상’이 보였다.

- ◆ 성경도 <구시대>는 ‘거꾸로’ 형상을 보듯 했다.
그러나 <새 시대>는 ‘바로’ 봤다.

하나님은 ‘은밀한 것’을 보일 때
<타인>이나 <보관자>는 ‘거꾸로’ 보게 하시고,
<시대 주인>만 ‘바로’ 보게 하신다.

- ◆ <주인>이 아니면 ‘거꾸로’ 보고 ‘거꾸로’ 산다.
- ◆ <축소>와 <확대>는 항상 ‘짜’ 이 되어 존재한다.
늘 연결해서 보아라.
- ◆ <작은 생각을 가진 자>는 ‘작은 것, 축소한 것’ 만 본다.
- ◆ <큰 자>는 ‘확대한 웅장하고 아름답고 신비한 세계’ 를 본다.
- ◆ <하나님>은 ‘바로’ 주시나, <받는 자>는 ‘거꾸로’ 받게 된다.
처음에는 ‘거꾸로’ 받지만
후에 지혜로운 판단으로 ‘바로’ 놓고 보는 자가
그 존재나 만물이나 물건의 ‘주인’ 이 된다.
- ◆ 계속해서 <거꾸로 보고 가지고 있는 자>는
그 존재물의 ‘주인’ 이 되지 못하고 ‘보관자’ 밖에 안 된다.
<바로 보는 자>가 ‘주인’ 이 되고,
그로 인한 기쁨과 희열을 느끼고
육신 일생, 영혼 영원까지 ‘자기 것’ 으로 삼는다.
- ◆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도 <거꾸로 보는 자>는
항상 ‘하나의 인간’ 으로만 보고 대한다.
이는 마치 ‘형상이 있는 귀한 돌’ 인데,
‘형상 없는 돌’ 로만 보는 것과 같다.
<바로> 봐야 ‘하나님이 보낸 자’ 로 보이고,

그 ‘형상과 모양과 사명’ 을 알고 대하게 된다.

- ◆ 그릇도 뒤집어 놓고 ‘거꾸로’ 보면,
물 한 컵도 담을 수 없으니 그릇으로 안 본다.

고로 그 가치를 10분의 1 정도로만 본다.

사람도, 만물도, 작품도, 진리의 말씀도, 주도
‘거꾸로 보는 자’ 는 그러하다.
- ◆ 같은 존재물, 같은 사람이라도
〈바로 보는 자〉가 ‘보화를 찾은 자’ 가 된다.
- ◆ 〈시간〉도 ‘바로 쓰지 못하는 자’ 는 ‘거꾸로 사는 자’ 와 같다.
이는 ‘시간의 형상과 모양과 가치를 못 보고 사는 자’ 와 같다.
- ◆ 〈사람〉도 ‘거꾸로’ 보면, 완전히 다른 형상과 모양으로 보인다.
- ◆ 〈사람〉도 ‘거꾸로’ 보면, 보잘것없이 보인다.
- ◆ 〈바로〉 보면, 형상과 모양이 제대로 보여
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여 감탄한다.
- ◆ 〈바로 못 보는 자〉는 ‘거꾸로 보는 자’ 다.
- ◆ 〈무의식 상태의 시간〉은 ‘거꾸로 생각하고 가는 시간’ 이다.
- ◆ 〈생각이 줄고 흥미한 상태의 시간〉은 ‘거꾸로 가는 시간’ 이다.

- ◆ <만물>을 ‘거꾸로’ 보면,
멋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신비함도 없다.
 - ◆ <코>를 ‘거꾸로’ 보아라. 멋이 있겠느냐.
만물도, 인생도, 작품도, 말씀도 그러하다.
 - ◆ <온전하게 생각하는 자>는 ‘바로 생각하는 자’ 다.
 - ◆ <하나님의 역사>도 처음을 나중으로 보고,
나중을 처음으로 ‘거꾸로’ 생각하면 보잘것없다.
 - ◆ <과일>도 ‘거꾸로’ 보면,
마치 집을 뒤집어 놓고 보는 격이라서 아름다움이 없다.
 - ◆ <시계>도 ‘거꾸로’ 뒤집어서 차 보아라.
아름다움도 신비함도 없다. 또 제대로 시간도 못 본다.
- 이와 같이 ‘거꾸로 보는 자’ 는 좋은 것도 나쁘게 보고,
선한 자도 악하게 보고, 악평하게 된다.
- 제정신이 아닌 자들이다.
지옥도 천국으로 보고 생각하며 가는 자들이다.
- ◆ <거꾸로> 생각하고 사는 인생은 모두 ‘주인’ 이 못 된다.
 - ◆ <땅>에서 오는 자를
<하늘>에서 ‘구름’ 타고 온다고 거꾸로 생각하니
결국 맞지 못하고, 바로 못 보고 ‘거꾸로 사는 인생들’ 이 되었다.

- ◆ 나무들과 그 외 식물들도 ‘거꾸로’ 보면 흥측하다.

〈나무〉는 ‘땅속’ 으로 들어가고,

〈뿌리〉는 ‘하늘’ 로 솟아 있으면 얼마나 삭막하겠느냐.

제대로 존재하지도 못한다.

〈거꾸로 보고 생각하고 사는 자들〉이 다 이러하다.

- ◆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‘바로’ 못 보고 사는 자는
나무는 땅속으로 들어가고, 뿌리는 하늘로 솟아 있듯
모두 ‘거꾸로’ 보고 사는 자다.

- ◆ 〈자연석〉도 ‘거꾸로’ 로 세워 놓으면 보잘것없고,
마치 〈미인〉이 ‘거꾸로’ 걸어 다니듯 볼 것이 없다.

- ◆ 월명동 〈성자바위〉도 ‘거꾸로’ 놓으면,
하나님 형상, 성령님 형상, 성자 형상, 인독수리 형상,
치타 형상, 말바닥 형상, 팬텀기 형상
이 일곱 가지 형상이 모두 다 안 보인다.

그냥 하나의 밋밋한 바위로 보일 뿐이다.

- ◆ 사람도 만물도 건물도 ‘바로’ 보아라. 그래야 보화를 찾는다.

- ◆ 돌을 사러 갔더니 〈좋은 돌〉은
주인이 안 팔려고 ‘거꾸로’ 세워 놓았다.

하나님은 아시니

다른 사람들은 ‘안 좋게’ 보고 못 사 가게 하시고,

우리가 사 오게 하셨다.

후에 ‘바로 보는 자’를 보내 주어 ‘바로’ 보게 하셨다.

곧 <두꺼비바위>로 알고 샀던 <코끼리바위>다.

<바로> 보니, 정확히 ‘코끼리 형상’이었다.

<바로> 보니, 더 귀했다.

◆ <사람을 무시하며 보는 자>는 ‘거꾸로 보는 자’ 다.

◆ <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를 제대로 못 보는 자>는
‘거꾸로 보는 자’ 다.

◆ <거꾸로> 보면, 보잘것없다.

아름다움도 신비함도 오묘함도 웅장함도 없다.

◆ <그림>도 ‘거꾸로’ 보면, 즉시 혼돈되어 보인다.

<하나님의 말씀>도 <성경>도 ‘바로’ 못 보면, 그러하다.

◆ 성경을 ‘바로’ 못 보니 태양이 멈췄다고 ‘거꾸로’ 인식하여,
눈에 피가 서리게 외치면서 전한다. 무지하다.

성경을 ‘바로’ 보니,

그 시대는 ‘태양이 멈췄다고 알고 있던 시대’였기에

성경을 그렇게 기록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.

또 성경을 ‘거꾸로’ 보는 자들은

그 당시 사람들이 969세, 930세까지 살았다고 하지만,

성경을 ‘바로’ 보니 그 시대는 달력이 나오기 전 시대라서

나이를 계산하는 법이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,
그 시대 사람들도 이 시대 사람들처럼 살다가
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.

성경을 ‘거꾸로’ 보고 외치는 자들은
상의를 아래에 입고 하의를 위에 입고 다니는 자들과 같다.

- ◆ 그나마 <생각>이 ‘실 가닥’ 같이 남아 있는 것은
‘그 <실 가닥 같은 생각>을 발판으로 삼아서
<바로> 생각하게 해 주어라.’ 함이다.
- ◆ <거꾸로 사는 자들>은 ‘머리를 땅에 두고 사는 것’ 과 같아서
머리로 피가 다 쏘려서 산다.
- ◆ <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을 위로 세우고 사는 자들>은
‘거꾸로’ 사는 자들이다.
- ◆ 이 시대 하나님이 보낸 자, <주>를 만나야
제대로 바로 ‘진리’ 를 배우고 ‘바로’ 살게 된다.
- ◆ 하나님이 보낸 자와 같이
<하나님의 생각대로 바로 생각하지 않는 자들>은
‘건너편에서 그와 겨루며 거꾸로 살아가는 자들’ 이다.

그 영이 영계에 가서도 ‘거꾸로’ 생각한다.
- ◆ 사탄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‘달리’ 생각하고 ‘거꾸로’ 생각한다.
자기들의 생각이 옳다는 것이다.

그리고 그 생각을 사람들에게 주입시켜
사람들도 그 사고로 살게 한다.

하나님을 안 믿게 하고, 하나님을 믿어도 거꾸로 생각하게 한다.

- ◆ 악한 자는 <거꾸로 시작>하여 ‘처음에는 웅장하게’ 한다.
그러나 ‘갈수록 쇠잔하게’ 되다가 끝난다. 그 끝은 ‘지옥’ 이다.

- ◆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의인들은 <바로 시작>한다.
고로 ‘처음에는 좁게’ 시작한다.
그러나 ‘갈수록 조금씩 넓어지고 높아지고 창대하게’ 된다.
결국 ‘천국’ 으로 가게 된다.

- ◆ 악 편, 비진리 편, 모르는 편의 자들은
<거꾸로> 생각하고 <반대로> 생각하니 그게 아니라고 하고,
<바로> 보고 사는 자들은 그게 맞다고 한다.

진리가 틀린 것이 아니고, 하나님이 보낸 자가 틀린 것이 아니다.
<거꾸로> 보느냐, <바로> 보느냐가 문제다.

- ◆ 의사가 진찰을 하고 “병이 있다. 수술해라.” 하니,
당사자는 “나는 병이 없다.” 하며 ‘거꾸로, 반대로’ 말한다.

그렇게 ‘거꾸로’ 생각하다가 결국 고통이 나타나게 된다.
그때는 죽게 생겼으니 ‘바로’ 생각한다.

- ◆ 무지하고 모르는 종교인들은
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갖은 희망을 다 걸고 산다.

- ◆ 무지한 종교인들은 ‘거꾸로’ 성경을 풀어 놓고,
틀려도 계속 그 길로 간다. 그렇게는 길을 못 찾는다.

- ◆ <영 부활>인데 ‘거꾸로’ 생각하고, <육 부활>이라고 한다.

지구 세상 73억 명이 ‘썩은 시체’를 놓고 살아나라고
100년 동안 기도해도 안 살아난다.

<바로> 보고 믿고 행해야 ‘영이 사는 부활’을 한다.

- ◆ <육 부활>로 보는 자는 ‘거꾸로’ 성경을 풀고
애간장 태우며 ‘육 부활, 육 재림’을 기다린다.

<예수님의 육신>이 ‘하늘 구름’을 타고 오기를 기다린다.

2000년 동안 그렇게 기다렸는데, 그렇게는 안 왔다.

<예수님의 육신>은 200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타나셨다.

<예수님의 영>만 나타나셨다.

그렇게 확인했으면 됐지,

아직도 ‘육 부활, 육 재림’을 기다리고 있다.

- ◆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
“<살리는 것>은 ‘영’이니, <육>은 ‘무익’하니라.

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‘영’이라.” 했는데도
그 말씀은 생각지 않고 안 믿는다.

- ◆ <바로> 못 보는 자는 ‘올바르게’ 못 간다.

- ◆ 하나님은

〈하나님을 바로 알고 제정신을 가지고 바로 생각하는 자〉에게
‘시대’를 맡기시고 그에게 ‘시대 말씀’을 주어
‘삼위일체가 성경에 예언한 것들’을 다 이루게 하시며,
‘택한 자들’을 생명권으로 이끌어 오게 하신다.

- ◆ 〈거꾸로 사는 자들〉은 당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다.

〈바로 사는 자들〉이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어
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살게 해 주어라.

- ◆ 사랑도 〈거꾸로〉 생각하는 자는 ‘육체’로 보고,
‘이성 사랑’만 하게 된다.

〈바로〉 보면 ‘영 사랑, 정신 사랑, 생각 사랑, 뇌 사랑’을 한다.

- ◆ 만사를 ‘바로’ 못 보면,
하나님의 섭리역사에서 뛰쳐나가 ‘거꾸로’ 사는 자에게 간다.

그리고 후에 후회하지만, 그때는 다시 돌아와지지 않는다.
이미 ‘사망의 선고’를 받았기 때문이다.

- ◆ 하나님도, 성령님도, 주도, 성경도, 말씀도, 만물도, 사람도, 사랑도
하나님이 주신 것들도, 자연성전도 모두 ‘바로’ 보고 살아라.

◎ 말씀 마쳤습니다.